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이 성 원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

연 규 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을 매개로 하여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 모형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성애자, 동성애자로 스스로 정체화한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37명 참여자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Mplus 7.0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설정하였고, 모형 비교 결과 전자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은 정신적 웰빙에도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정신적 웰빙에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가 정적인 영향을, 회피 중심 대처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를 검정한 결과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거쳐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 정신적 웰빙,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 본 연구는 이성원(2017)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또한 본 연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2016 이창국 기금(활동가 생기충전기금)’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다산관 336호

Tel : 02-705-8327, E-mail : kjiyon@sogang.ac.kr

동성애가 ‘정신병’이란 낙인을 견어내기까지 많은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Herek & Garnets, 2007). 지난 20세기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그리고 199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에서 ‘동성애(homosexuality)’를 삭제함으로써 동성애는 정신병리와 무관하며, 이성애, 양성애 등과 함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정상적인 한 형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2016; International Psychology Network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Issues, 2018;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2016). 미국심리학회(2008) 또한 1975년에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래로 성소수자를 향한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이 사회에 실재한다(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2014)에서 만 12세에서 61세 사이의 성소수자 3,1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LGBTI(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사회적 욕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3%가 공공장소에서 LGBTI를 향한 증오와 혐오 발언이 표출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난다고 보고했으며, 응답자 중 55.2%가 공공장소에서 LGBTI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폭력 및 괴롭힘이 ‘종종’ 또는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정부 또한

2018년 11월에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로부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부분에서 최하등급인 ‘E’로 평가받기도 하였다(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9).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LGB)¹⁾ 개인은 개인적 차원부터 제도적, 사회적 차원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혐오와 차별을 마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을 이유로 비성소수자가 경험하지 않는 고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Meyer(2003)는 소수자라는 심리사회적 맥락 안에서 부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라 명명하였으며, 소수자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통해 소수자 스트레스가 성소수자(LGB)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틀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듯, 선행연구들에서도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성소수자(LGB)가 지닌 취약성이나 부정적인 정신 건강 지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다(Herek & Garnets, 2007). 한국의 성소수자(LGB) 관련된 연구에서도 대체로 종속 변인을 우울이나 불안, 자살 사고 등 부정적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예, 공성욱, 오상섭, 노경선, 2002; 김은경, 권정혜, 2004; 최은희, 윤희미, 2011).

소수자 스트레스의 영향을 확인한 다양한

1)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라 함은 LGBTAI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sexual, Intersex, and Questioning)를 모두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나, 본 연구에선 성적 지향의 차원만을 고려하여 시스젠더(cisgender) 비이성애자(non-heterosexual) 집단을 칭하는 다소 한정된 의미로 편의상, 괄호 안에 LGB(Lesbian, Gay, and Bisexual)를 함께 표기하여, ‘성소수자(LGB)’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국내 연구들 중에서, 성소수자(LGB)를 대상으로 한 이호림(2015)의 연구는 소수자 스트레스로 사회적 낙인 인식, 내면화된 동성애혐오, 반동성애 폭력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낙인 인식의 수준과 내면화된 동성애혐오가 높을수록, 반동성애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Meyer(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형을 국내 성소수자(LGB)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소수자 스트레스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대처 과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윤수진(2019)은 성소수자(LGB)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 중심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회피 중심 대처 사이의 관계에서 성소수자(LGB)로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과정을 개인적 차원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앞서 기술한 연구와 같이, 이러한 부정적 정신 건강 지표를 통해 나타난 증상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성소수자(LGB)의 심리적 웰빙과 기능 수준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Herek & Garnets, 2007). Keyes(2002, 2005)는 정신 건강을 정신장애의 부재만이 아니라 행복(happiness)을 포함하는 이원적이고 연속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신 건강의 다른 한 축인 긍정적 정신 건강의 지표로서 정서적 웰빙과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을 포괄한 개념인 정신적 웰빙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Keyes(2002, 2005)

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 건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부정적 정신 건강 지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의 국내 성소수자(LGB)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과 Meyer(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한 대처 자원들과 대처 전략들을 각각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소수자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제안한 Meyer(2003)는 성소수자(LGB)를 소수자에게 열악한 사회적 현실로 인해 피해만 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처하며 대응해가는 능동적인 존재로도 보았다. 스트레스-대처 이론에서 대처란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한 내적 혹은 외적 요구를 처리하고자 계속해서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들”로 정의되는데(Lazarus & Folkman, 1984, p. 141), 대처 자원은 개인이 이러한 대처 전략들을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대처 자원은 대처 전략의 사용에 선행하여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azarus & Folkman, 1984), 그 자체로 개인의 정신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대처 전략을 매개하여 정신 건강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처 자원은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을 이해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Meyer(2003)는 성소수자(LGB)들이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모두에서 자원을 활용함을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제안대로 대처 자원을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나누고, 집단적 차원의 대처 자원으로써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대처 자원으로써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에 주목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정신적 웰빙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집단적 차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한 대처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나, 정신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진 않았다(김은경, 권정혜, 2004; 강병철, 2011; 박의주, 2012; 이호림, 2015).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못한 이유로 사회적 지지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연결망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성소수자(LGB)를 대상으로 한 강병철(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출처를 가족, 비성소수자, 성소수자로 나누어 측정하기도 했는데, 사회적 지지가 커밍아웃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출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표면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만을 확인하였을 뿐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이나 지원체계의 질 등 집단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안정적 출처가 되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필요의 충족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보기 위하여 McMillan과 Chavis(1986)가 제안한 공동체 의식 개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이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한 대처 전략을 매개하여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으로써 성소수자(LGB)가 활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이란 자신이 공동체에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 혹은 집단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에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과 정서적 연결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McMillan, 1976; McMillan & Chavis, 1986; 정안숙, 2015). 선행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개인적 대처 능력과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Davidson & Cotter, 1991), 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 목적의식과 지각된 통제감도 커져서 외부의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Bachrach & Zautra, 1985; McMillan & Chavis, 1986에서 재인용). 이렇듯 공동체 의식은 스트레스 대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에게 하나의 대처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성소수자 공동체는 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쉽지 않은 성소수자에게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자 집단적 자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심리적 지지와 역사적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제공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Fassinger & Arseneau, 2007). 그 외에도 Gonsiorek과 Rudolph(1991)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성소수자(LGB)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t care-giver)이자 자기상(self-object)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국내 질적 연구에서도 성소수자 공동체는 성소수자에게 정보 교환과 고민 상담을 위한 공간이자, 다른 성소수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장소였고,

성소수자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배경을 의미했다(손소연, 이지하, 2016). 실제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내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90.4%가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69.2%가 오프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한국 성소수자들에게도 성소수자 공동체는 가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났다(한국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선행연구에서도 성소수자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소수자(LGB) 개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욱 적게 지각하였고(Luhtanen, 2002),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영향을 완충하기도 하였다(Branscombe, Schmitt, & Harvey, 1999; Brown, Sellers, Brown, & Jackson, 1999; Crocker & Major, 1989; Miller & Major, 2000). Meyer(2003) 역시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연결감을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 자원으로 언급하였으며, 관련 연구에서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연결감은 사회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에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Kertzner, Meyer, Frost, & Stirratt, 2009). 정리하자면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은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영향력, 필요에의 충족, 그리고 정서적 연결감을 포괄하며, 성소수자(LGB) 개인으로 하여금 성소수자 공동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을 통해 소수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찾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는 등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한 대처 전략의 사용을 조력함으로써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어서 개인적 차원의 대처 자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체성에 주목하였으며, 성소수자(LGB)로서 긍정적 정체성 역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 전략을 매개하여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였다.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LGB) 개인이 이성애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성소수자(LGB)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적응해 가는 독특한 발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준호, Lawrence Gerstein, Deborah Miller, 2014). 성소수자(LGB)의 정체성 발달 과정을 설명한 여러 연구자들이 있었는데(예, Cass, 1979; Eliason, 1996; McCarn & Fassinger, 1996; Troiden, 1989; 여기동, 이미형, 2006; 정현영, 2018), 그 중 대표적 학자인 Cass(1979)는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혼란과 비교, 용인, 수용, 자긍, 그리고 통합까지 여섯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발달 단계(stage)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McCarn과 Fassinger(1996)는 사회구성주의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성소수자(LGB)들이 자각, 탐구, 심화/전념, 내재화/통합의 네 가지 상(phase)을 거친다고 보았고, Cass(1979)와 달리 정체성 발달을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각각에서 비점진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공통적으로 두 이론은 모두 성소수자(LGB)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를 재평가(reappraisal)하고 내적 혹은 외적 커밍아웃 과정에서 자기수용(self-acceptance)을 경험함으로써 성소수자(LGB)이자 독특한 한 개인으로서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발달시켜 갈 수 있다고 보았다. 성소수자(LGB)로서 이러한 긍정적 정체성은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Meyer(2003)는 성소수자(LGB) 개인이 자신의 성소수자(LGB)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의 성소수자(LGB) 정체성은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등 정신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성소수자(LGB) 개인은 자신이 당면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와 관련하여 해당 소수자 정체성이 현재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prominence), 혹은 이에 어떤 정서(valence)를 부여하는지, 이를 자신의 정체성과 얼마나 잘 통합시키고 있는지에 따라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Rosenberg & Gara, 1985; Thoits, 1991; Deaux, 1993; Thoits, 1999). 이 중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정서가는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자기타당화(self-validation)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성소수자(LGB)로서 정체성 발달 과정의 맥락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LGB)로서 긍정적 정체성은 이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와 그로 인한 부정적 자기를 직면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을 동반하며, 이는 성소수자(LGB) 정체성에 관한 개인의 경험을 자기타당화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체성과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을 예측한 국내 연구는 찾을 수 있었다(장지윤, 안현의, 2018). 또한 성소수자(LGB)로서 정체성과 정신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성소수자(LGB) 정체

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사회적, 심리적 웰빙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Kertzner et al., 2009), 성적 정체성의 긍정(affirmation)이 성소수자(LGB)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hr & Kendra, 2011). 그리고 Miranda와 Storms(1989)은 동성애자로서 정체화가 불안을 줄이고 자아강도를 높여 접근 중심 대처를 원활하게 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중학생 양성애자 여성에게 성소수자(LGB)로서 자신에 대한 자기성찰은 그 자체로는 자존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으나, 자기수용을 매개함으로써 자존감에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이승화, 2013).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성옥과 성승연(2011)의 질적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용은 부적응에서 적응으로의 전환점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성소수자(LGB)로서 긍정적 정체성은 정체성 발달 과정에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와 그로 인한 부정적 자기를 재평가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자기수용을 높이고 자기타당화를 도움으로써 성소수자(LGB) 개인의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 능력을 증진시켜 소수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처 전략의 사용을 조력함으로써 정신적 웰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의 대처 자원으로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한 대처 전략을 매개하여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단적 차원의 대처 자원인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개인적 차원의

대처 자원인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체성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작용할 수도 있지만,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 과정에서 대처 전략들을 매개하여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대처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대처 전략들을 기능에 따라 접근 중심 대 회피 중심 대처(Suls & Fletcher, 1985)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선 접근 중심 대처 전략인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문제해결 중심 대처, 그리고 회피 중심 대처로 총 세 가지 대표적인 대처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접근 중심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긍정적인 심리적, 신체적 지표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Taylor & Stanton, 2007). 그 이유로 스트레스원의 특성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예를 들어 문제해결 중심 대처와 같은 특정 접근 중심 대처의 경우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스트레스원에 대해선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변할 수 없는 스트레스원에 대해선 유용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Park, Folkman, & Bostrom 2001). 또한 회피 중심 대처는 기간이 짧고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Suls & Fletcher, 1985), 장기적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회피 중심 대처는 심리적 불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Taylor & Stanton, 2007). 따라서 스트레스원으로써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가 지닌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접근-회피 대처 전략이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로써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근-회피 대처 전략으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박수현(2010)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중심 대처가 심리 사회적 적응에 정적 영향을, 회피 중심 대처가 부적 영향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회피 대처 전략들은 성소수자(LGB)의 정체성 형성과 적응에 관한 국내 질적 연구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었다(백은정, 유영권, 2004; 송윤옥, 2006; 성정숙, 2010; 성정숙, 이현주, 2010; 이영선, 김소라, 2010; 이가희, 2010; 강병철, 하경희, 2012; 김형지, 신정훈, 연구진, 김향숙, 2015). 예로, 먼저 여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이가희(2010)의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반동성애 폭력에 맞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보이거나, 다른 동성애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를 하기도 하였다. 반면 동성애자로 읽힐 수 있는 단서나 상황을 제거하거나 스스로 정체성을 부인하는 등 회피 중심 대처를 보이기도 했다. 청소년 남성의 동성애 관련 사이버 상담사례를 분석한 이영선과 김소라(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체성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접근 중심 대처도 하고, 이성애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거나 관심 가는 동성을 회피하고 자제하거나 극기의 모습을 보이는 등 회피 중심 대처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한 이러한 접근-회피 대처 전략들이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껏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근 중심 대처인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문제해결 중심 대처, 그리고 회피 중심 대처를 성소

수자(LGB)의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에 적용해 봄으로써, 각각의 대처 전략의 사용이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집단적 차원에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 개인적 차원에서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체성이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자원으로써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써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은 정신적 웰빙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은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3.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은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을 매개하여 정신적 웰빙을 예측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을 동성애자(레즈비언, 게이) 혹은 양성애자(바이섹슈얼, 팬섹슈얼)로 보고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을 사용하였으며, 성소수자(LGB)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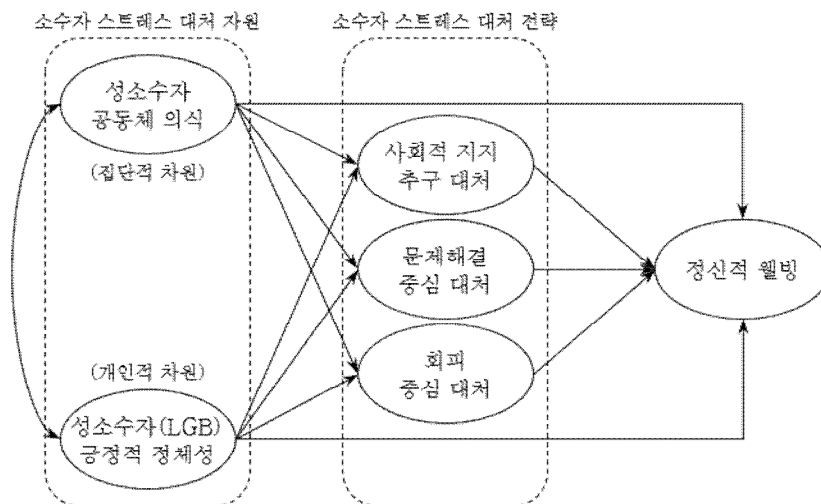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적인 게이 커뮤니티 웹사이트 한 곳과 레즈비언 커뮤니티 웹사이트 두 곳,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도적 표본추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커뮤니티 웹사이트의 경우 운영자의 협조를 구하여 배너나 게시판에 설문 참여자 모집 광고를 게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SNS의 경우, 성소수자 단체들에 협조를 구하여 성소수자 개인들이 이를 공유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공식 계정에 설문 참여자 모집 광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 참여자를 위한 설명서와 동의서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거쳐서 연구참여자가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을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성적 지향 및 성소수자 공동체 경험 관련 질문,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 인구통계학적 질문, 그리고 응답자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타당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겐 1,000원 상당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여 설문 응답을 완료한 사람은 총 1,206명이었으며, 이 중 연구대상자가 아닌 혼입된 163명을 우선 제외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응답자 1,043명 중 응답자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타당도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06명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937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여성 373명(39.8%), 남성 564명(60.2%)으로, 남성 참여자가 더 많았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59세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6.7세(SD=7.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10대가 95명

(10.1%), 20대가 606명(64.7%), 30대가 160명(17.1%), 40대가 65명(6.9%), 50대가 11명(1.2%)으로,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중졸이 22명(2.3%), 고졸이 103명(11.0%), 전문대 재학이 46명(4.9%), 전문대졸이 61명(6.5%), 대학 재학이 362명(38.6%), 대졸이 230명(24.5%), 대학원 재학이 53명(5.7%), 대학원졸이 60명(6.4%)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435명, 46.4%)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경기도(232명, 24.8%), 인천(45명, 4.8%), 강원도(21명, 2.2%), 대전(18명, 1.9%), 충청도(24명, 2.6%), 부산(29명, 3.1%), 대구(32명, 3.4%), 울산(11명, 1.2%), 경상도(40명, 4.3%), 광주(12명, 1.3%), 전라도(28명, 3.0%), 제주도(8명, 0.9%)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성적 지향은 양성애가 380명(40.6%), 동성애가 557명(59.4%)으로, 동성애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처음 인지한 시기는 평균 나이 만 14.8세(SD=4.8)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2007)의 조사에서 14.6세,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 14.5세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성소수자 공동체에 처음 가입한 시기는 평균 나이 19.8세(SD=5.1)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roescholdbell, Roosa와 Nemeroff (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공동체 의식 척도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cale: PSOC)를 Lin과 Israel(2012)이 성소수자 공동체를 대상으

로 수정 및 보완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 척도(Psychological Sens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Scale: PSOC-LGB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SOC-LGBT는 성소수자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6개의 문항(예: “당신에게 다른 LGBT 사람들의 의견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소수자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정서적 연결감을 나타내는 5개의 문항(예: “일반적으로 LGBT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연대의식(동지애)을 느낍니까?”),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는 3개의 문항(예: “당신이 LGBT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성소수자 공동체를 통한 필요의 충족감을 나타내는 3개의 문항(예: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느낍니까?”), 추가로 성소수자 공동체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5개의 문항(예: “당신은 LGBT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얼마나 느낍니까?”)까지 총 다섯 요인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PSOC-LGBT 타당화 연구(Lin & Israel, 2012)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번안-역번안 절차를 거쳐 PSOC-LGBT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원척도를 개발한 원저자에게 척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원척도의 문항을 한국어로 1차 번역하고, 성소수자 단체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구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친숙한 단어와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

한 문항을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사용자가 영어로 다시 1차 역번역하였다. 그 후 1차 역번역한 문항과 원문항이 뜻하는 바가 얼마나 동일한지, 미국과 한국의 성소수자 공동체 모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원어민이 각 역번역 문항과 원문항 쌍이 의미상 유사성을 7점 리커트 척도(1=Completely Different, 7=Completely Identical)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유사성 점수가 6점 미만인 문항에 대해선 위와 같은 역번안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역번역 문항과 원문항 간의 의미 유사성과 번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완성된 번역 문항을 토대로, 미국 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로 번안한 PSOC-LGBT에 원척도와 같은 5요인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왜도는 0.012에서 1.043, 첨도는 0.099에서 1.111로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켰으며(Curran, West, & Finch, 1996), 5요인 구조의 모형 적합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N=937, df=199)=1155.745$ ($p<.001$), CFI=.907, TLI=.892, RMSEA=.072 (90% CI [.068, .076]), SRMR=.054).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PSOC-LGBT에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5요인 모형을 적용하는데 구인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PSOC-LGBT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8로 나타났다.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Riggle, Mohr, Rostosky, Fingerhut와 Balsam(2014)이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LGB-PIM)를 장지윤(2016)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LGB-PIM은 자각(예: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진실성(예: “나는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하다.”), 소속감(예: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친밀감(예: “나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정체성은 애인과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정의(예: “동성애자/양성애자로서의 경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로서 자신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있음을 뜻한다. LGB-PIM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남녀 비이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LGB-PIM 개발연구(Riggle et al., 2014)에서 .85에서 .95로, 한국의 남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장지윤(2016)의 연구에서 .77에서 .89로, 본 연구에서 .834에서 .8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의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분석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 개념과 유사한 LGB-PIM의 소속감 차원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3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측정하기 위

해,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타당화하고, 박수현(2010)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수정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CSI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예: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았다.”), 문제해결 중심 대처(예: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생각해 보았다.”), 회피 중심 대처(예: “문제를 외면하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등 세 개의 하위요인을 갖고 있으며, 요인마다 11문항씩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LGB)로서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대처에 초점을 두고, CSI의 지시문을 박수현(2010)의 방식에 따라 ‘동성애자/양성애자로서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했던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일들 중 중요했거나 크게 걱정되었던 일(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서부터 동성애자/양성애자로서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한 가지’를 떠올리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의문문이었던 원문항을 서술문으로 수정하였고, 각 문항을 3점이 아닌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보완하였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남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박수현(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89, 문제해결 중심 대처 .90, 회피 중심 대처 .74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925, 문제해결 중심 대처 .919, 회피 중심 대처 .818로 나타났다.

정신적 웰빙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

해 Keyes 등(2008)이 개발한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신적 웰빙 척도(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를 사용하였다. MHC-SF는 정서적 웰빙을 나타내는 3개의 문항(예: “만족감을 느꼈다”), 사회적 웰빙을 나타내는 5개의 문항(예: “나는 사회에 공헌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심리적 웰빙을 나타내는 6개의 문항(예: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등 총 세 차원의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에 대해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0=전혀 없음, 5=매일),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MHC-SF 타당화 연구(임영진 등, 2012)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1.0, Mplus 7.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PSOC-LGBT, LGB-PIM, CSI의 하위요인들, MHC-SF)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Mplus 7.0를 사용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PSOC-LGBT에 원척도의 5요인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기에 앞서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각각 확인하였고, 둘 다 절대값 2와 7보다 작아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Curran et al., 1996). 또한 CSI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돼 일차원성 가정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법(Landis, Beal, & Tesluk, 2000;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으로 한 묶음에 3~4개 문항씩 변인마다 총 3개의 묶음으로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진행했다. 나머지 주요 변인들(PSOC-LGBT, LGB-PIM, MHC-SF)은 이론적으로 제시된 하위요인에 따라 내용 기반 방법(content-based method)으로 하위요인별 문항 묶음을 진행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의 모형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모형화를 통해 우선 측정모형을 검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적합도를 확인한 후, 주어진 측정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는 여러 학자들(Kline, 2011; Boomsma, 2000; McDonald & Ho, 2002)의 제안에 따라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을 함께 확인하였고, CFI가 0.90보다 크거나 TLI가 .090보다 크고 RMSEA가 0.08보다 작으며 SRMR이 0.08보다 작은(Hu & Bentler, 1999) 등의 기준들을 다수 만족할 경우 대체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이라 판단

하였다. 또한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비교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사이의 χ^2 차이 검정을 통해 .001 유의수준에서 더 좋은 모형을 판단하여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최종 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간접효과 검정을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적 웰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기 앞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분석에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 모두 왜도, 첨도가 각각 절대값 2와 7보다 작아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Curran et al., 1996).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N=937, df=174)=672.219$ ($p<.001$), CFI=.958, TLI=.949, RMSEA=.055 (90% CI [.051, .065]), SRMR=.041). 측정모형에서 각 잠재변수마다 측정변수들의 로딩값 및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구체적인 표준화 추정치는 그림 2와 같다. 모든 측정변수의 로딩값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표준화된 로딩값 역시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서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Matsunaga, 2010; Stevens, 2012). 그리고 잠재변수들 간의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상관은 .592로 다중공선성이 의심이 될 만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회피 중심 대처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회피 중심 대처는 정신

표 1. 연구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 (N=937)

	1	2	3	4	5	M	SD	왜도	첨도
1. PSOC-LGBT	-					2.891	0.664	0.041	-0.405
2. LGB-PIM	.533***	-				5.152	1.137	-0.701	0.134
3. CSI-S	.420***	.452***	-			2.963	0.971	-0.120	-0.716
4. CSI-P	.307***	.346***	.592***	-		3.164	0.836	-0.270	-0.184
5. CSI-A	-.016	-.054	.005	-.038	-	2.808	0.757	0.029	-0.286
6. MHC-SF	.264***	.203***	.263***	.332***	-.296***	2.097	1.046	0.245	-0.571

주. *** $p < .001$. M=평균. SD=표준편차. PSOC-LGBT=성소수자 공동체 의식. LGB-PIM=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 CSI-S=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CSI-P=문제해결 중심 대처. CSI-A=회피 중심 대처. MHC-SF=정신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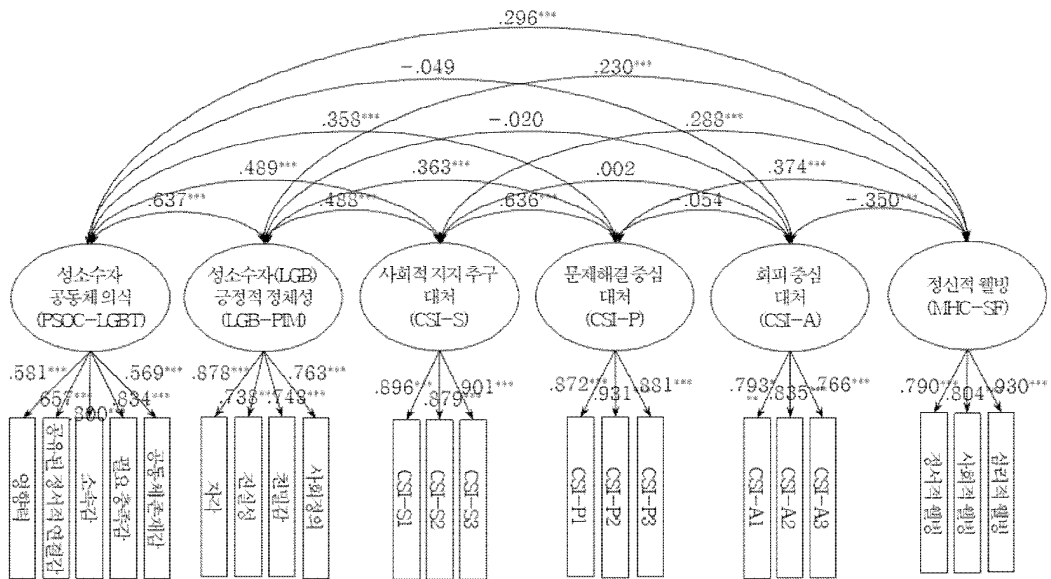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표준화 추정치 (N=937)

주. ** $p < .01$. *** $p < .001$. CSI-S1~3=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묶음. CSI-P1~3=문제해결 중심 대처 묶음. CSI-A1~3=회피 중심 대처 묶음.

상관계수는 .9보다 작았으므로 변별 타당도 또한 확보하였다(Kline, 2011). 이를 통해 22개의 측정변수로 6개의 잠재변수를 구인한 측정모형이 본 자료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 및 직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해결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여 부분매개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N=937, $df=177$)=926.363 ($p < .001$), CFI=.937, TLI=.925, RMSEA=.067 (90% CI [.063, .072]),

SRMR=.07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이 문제해결 중심 대처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가 정신적 웰빙으로,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회피 중심 대처나 정신적 웰빙으로 향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그 외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에서 정신적 웰빙으로 이어진 두 경로를 제거한, 내재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은 연구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단순한 모형으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세 가지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완전매개하여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경쟁모형 또한 모형의 적합도가 χ^2 (N=937, $df=$

179)=942.543 ($p < .001$), CFI=.936, TLI=.925, RMSEA=.067 (90% CI [.063, .072]), SRMR=.07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거한 두 경로를 제외하고 연구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모든 경로가 경쟁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추가적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에서 정신적 웰빙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사이에서 χ^2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chi^2_D = \chi^2_S - \chi^2_C = 942.543 - 926.363 = 16.18$, $df_D = df_S - df_C = 179 - 177 = 2$, $p = .0003$ 로 나타났다. 즉, 유의수준 .001에서 경쟁모형에 비해 더 복잡

한 모형인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부분매개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경로 계수의 표준화 추정치는 그림 3과 같다. 최종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문제해결 중심 대처에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beta = .313$, $p < .001$; $\beta = .235$, $p < .001$)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beta = .306$, $p < .001$; $\beta = .237$, $p < .001$)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웰빙으로 향한 경로에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문제해결 중심 대처는 정적인 영향을($\beta =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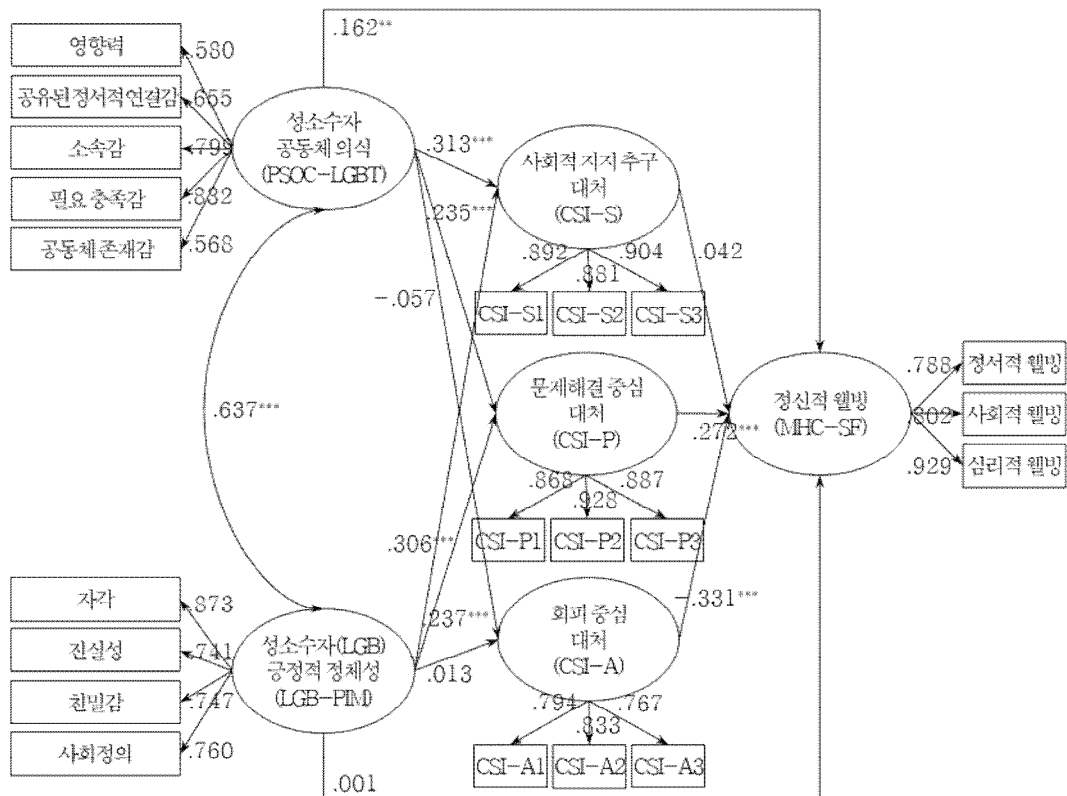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모형의 표준화 추정치 (N=937)

주. ** $p < .01$. *** $p < .001$. CSI-S1~3=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묶음. CSI-P1~3=문제해결 중심 대처 묶음. CSI-A1~3=회피 중심 대처 묶음.

$p < .01$; $\beta = .272$, $p < .001$), 회피 중심 대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beta = -.331$, $p < .001$). 또한 최종 모형은 정신적 웰빙 변량의 약 2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않으므로 두 경로에서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논 의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최종 모형의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들을 거쳐 정신적 웰빙으로 이어진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10,000번 표집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인 경로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에서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매개하여 정신적 웰빙으로 이어진 경로와,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에서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매개하여 정신적 웰빙으로 이어진 경로로 나타났다. 두 경로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의 구체적인 추정치는 표 2와 같다.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매개하여 정신적 웰빙으로 이어진 두 경로의 간접효과는 각각 95% 신뢰구간인 [.032, .097]과 [.033, .095]에서 .064와 .065로 정신적 웰빙에 대하여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둘 다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

본 연구에서는 비이성애자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들을 매개하여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고, 부분 매개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1, 2, 그리고 3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으로 이어진 직접 경로에서 둘의 영향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의 경우 정신적 웰빙에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성소수자를 특정하지 않은 인구집단을 대상(예, 지역사회 구성원, 라틴계 청소년, 대학생)으로 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Davidson & Cotter, 1991; Prezza & Constantini, 1998; Prezza, Amichi, Roberti, & Tedeschi, 2001; Farrell, Aubry, & Coulombe, 2004; Sanchez, Colon, & Esparza, 2005; 류승아, 2014). 즉, 공동체 의식이 정신

표 2. 최종 모형에서의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937)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PSOC-LGBT → CSI-P → MHC-SF	0.123***	.032	.064***	.032	.097
LGB-PIM → CSI-P → MHC-SF	0.051***	.013	.065***	.033	.095

주. *** $p < .001$. PSOC-LGBT=성소수자 공동체 의식. LGB-PIM=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 CSI-P=문제해결 중심 대처. MHC-SF=정신적 웰빙.

건강의 긍정적 지표에 보여준 정적인 영향이 성소수자(LGB)와 성소수자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의 경우 정신적 웰빙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의 측정모형에서 두 잠재변인 간의 상관 관계는 유의미했던 것으로 보아, 이는 완전매개효과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모형의 매개효과에 대해선 뒤의 세 번째 연구문제 논의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로,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대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의 영향은 접근 중심 대처로 분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문제 해결 중심 대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회피 중심 대처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개인의 대처 방식으로써 집단 정체화(group identification) 혹은 탈정체화(dis-identification)로도 설명할 수 있다(Major & O'Brien, 2005).

소수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집단 정체화를 한다는 것은 성소수자(LGB)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높여 성소수자(LGB) 개인이 성소수자 집단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집단 소속감과 함께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말한다(Ashmore, Deaux, & McLaughlin-Volpe, 2004). 즉,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집단적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한 사람은 자신의 성적 끌림이나 친밀한 관계, 성소수자 공동체 경험 등을 모두 자기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성소수자(LGB)로서 집단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사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다르

게 대우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Branscombe & Ellemers, 1998). 이처럼 집단 정체화 대처는 집단과의 동일시하는 측면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집단에 대한 정서적 연결감을 공유하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유사하다. 그리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기개념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성소수자(LGB)로서 긍정적 정체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 정체화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맞선다는 점에서 접근 중심 대처, 즉,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문제해결 중심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탈정체화 대처는 회피 중심 대처와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으며, 성소수자(LGB) 개인은 집단적 정체성과 거리를 두고 탈정체화를 통해 사회적 낙인과 무관해지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다. 탈정체화 대처는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성소수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들인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오직 사적인 수준에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처해야 한다(Meyer, 2003). 이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세 가지 대처 전략 중 회피 중심 대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탈정체화 대처의 맥락대로라면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이나 긍정적 정체성이 낮아지면서 회피 중심 대처가 높아져서, 즉 부적인 관계를 보여야 하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회피 중심 대처로 이어진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회피 중심 대처는 여러 연구에서 효과적인 대처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Taylor & Stanton, 2007),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

성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회피 중심 대처가 줄어드는 결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LGB)들이 소수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하는 회피 중심 대처는 자신의 공동체 의식 및 긍정적 정체성의 높고 낮음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측정도구의 한계나 표본집단의 특성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 중 한 가지로 소수자 스트레스가 사회구조적,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소수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이 개인의 수준에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 가용 자원 유무와 상관없이 정체성을 은폐하는 방식인 회피 중심 대처 전략이 개인에게 가능한 대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잠정적 해석에 불과하며, 해당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모형 중 세 가지 대처 전략들이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써 정신적 웰빙에 주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문제해결 중심 대처는 정적인 영향을, 회피 중심 대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 중심 대처가 주로 정신 건강의 긍정적 지표, 회피 중심 대처가 심리적 불편감을 예측했다는 기존 연구들의 맥락과도 연결되며 (Taylor & Stanton, 2007),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해결 중심 대처가 정적 영향을, 회피 중심 대처가 부정적 영향을 보인 박수현(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회피 중심 대처는 자신의 성적 지향 및 관련된 경험들을 부정하고 숨기려 한다는 점에서 정체성 은폐 전략과도 유사

한데, 성소수자(LGB)의 정신적 웰빙에 나타난 회피 중심 대처의 부정적 영향 또한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성소수자(LGB)에게 정체성 은폐 전략은 흔하게 사용되는 전략이나 자신의 성적 지향 및 관련 경험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선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저야 할 수 있고(Smart & Wegner, 2000), 이는 곧 정신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해결 중심 대처나 회피 중심 대처의 경우 예상한 대로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접근 중심 대처의 하나인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의 경우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그 영향이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의 문항들은 성적 지향과 무관히 포괄적인 사람들(예, 주위 사람들, 친구, 가족들, 전문가)의 지지를 요청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있다. 이는 성적 지향을 특정하지 않은 대상에게 성소수자(LGB)로서 소수자 스트레스 상황을 알리는 것을 뜻하여 커밍아웃과도 관련되어 있다. 물론 커밍아웃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겠으나(Kahn, 1991; Schmitt & Kurdek, 1987), 반대로 커밍아웃의 결과가 거부, 폭력, 비난으로 이어지고(Ryan & Futterman, 1998) 반동성애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우울과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강병철, 하경희, 2007) 등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이 실재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더라도 전반적인 삶에서의 정신적 웰빙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표 1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가 다른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들처럼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의 영향력이 본 연구모형에서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나 회피 중심 대처로 인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들을 거쳐 정신적 웰빙에 보이는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매개로 한 두 경로(성소수자 공동체 의식→문제해결 중심 대처→정신적 웰빙,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문제해결 중심 대처→정신적 웰빙)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의 간접효과는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영향을 완충한다는 연구 결과들(Branscombe et al., 1999; Brown et al., 1999; Crocker & Major, 1989; Miller & Major, 2000)을 뒷받침한다. 우선 성소수자(LGB)에게 성소수자 공동체는 일차적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자, 사회적, 심리적 지지와 역사적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제공하는 집단적 자원이며(Fassinger & Arseneau, 2007), 이는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대한 집단적 대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성소수자 공동체를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필요를 충족하고 소속감과 정서적 연결감을 가지므로써 소수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적 대처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Davidson & Cotter, 1991; McMillan & Chavis, 1986).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높은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LGB) 긍정적 정체성이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거쳐 정신적 웰빙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정체성의 통합된 수준 등 성소수자(LGB)로서 정체성의 특성에 따라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Rosenberg & Gara, 1985; Thoits, 1991; Deaux, 1993; Thoits, 1999)와도 맥을 공유한다. 성소수자(LGB)로서 긍정적 정체성이 높다는 것은 소수자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이해와 타당화를 거쳐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대한 자각과 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수용이 높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Cass, 1979; McCarn & Fassinger, 1996; Meyer, 2003).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McCarn & Fassinger, 1996; Riggle & Rostosky, 2011), 결과적으로 소수자 스트레스에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소수자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경감시켜 정신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에서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을 설명한 McCarn과 Fassinger(1996)의 이론적 관점과 Meyer(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적용하여,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자원이 대처 전략을 통해 성소수자(LGB)의 긍정적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PSOC-LGBT, LGB-PIM 등 성소수자에 특화된 변인을 한국어로 번안하거나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성소수자(LGB)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고,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고 집단적 대처자원으로써 활용할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성소수자(LGB)에게 성소수자 공동체가 수행하는 심리사회적 역할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상담 장면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볼 수 있다. 먼저 상담자는 성소수자(LGB) 내담자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모두에서 대처 자원을 발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차원을 고려하여, 소속감과 정서적 연결감, 집단과 구성원들 간에 주고받는 영향력,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에게 맞는 성소수자 공동체를 찾을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여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에 대해 자각하고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타당화와 자기수용, 자기실현을 통해 성소수자(LGB)로서 긍정적 정체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상담에서 내담자를 적극 옹호(affirmation)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적 접근에 성소수자 적극적 옹호 상담(LGBTQ-affirmative therapy)이 유용할 수 있으며(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ALGBTIC LGBQQIA Competencies Taskforce, 2013), 상담자는 성소수자 상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김경호, 2009; 박준호 등, 2014; 우사라, 유성경, 2017; 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또한 상담자는 성소수자(LGB) 내담자로 하

여금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수자 스트레스에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소수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 중심 대처보단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체적인 대처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연습함으로써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Meyer(2003)는 성소수자(LGB)의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처를 중심에 둔 개입이 사회구조적 억압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칫 사회에서 개인에게로 쏠리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에 관하여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 모두에서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상담자는 성소수자(LGB) 내담자에게 대처 자원 및 전략의 활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사회정의 접근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구조적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변화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최가희, 2018).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국내 성소수자의 정확한 모집단에 근거한 확률표집을 실시하지 못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활용하였으나, 온라인이 익숙한 사람이거나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 혹은 이용자가 전체 집단을 과잉대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내 성소수자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소수자 관련 척도들이 지닌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PSOC-LGBT는 본 연구에서 한국어

로 번안한 것으로, 추가적인 표본집단 설문을 통해 신뢰도와 함께 요인구조를 재확인하고, 기존의 다른 공동체 의식 척도들을 통해 타당도를 교차검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국내 성소수자에 대한 심리학 연구 및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성소수자 관련 해외 이론들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에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한국이 유교적 가치관을 근간으로 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에 속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 성소수자에게 사회적 지지는 서구 사회와 다른 맥락을 지닐 수 있고(박준호 등, 2014), 성적 정체성에 대한 가족의 수용 혹은 거부 정도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김진이, 2017). 따라서 일상적인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를 받기 힘든 경우,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 자원으로써 성소수자 공동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역할과 당면한 현안에 대해 탐색적,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강병철, 하경희 (2007).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5, 167-189.
 강병철, 하경희 (2012).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99-128.
 공성욱, 오상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 *신경정신학회지*, 41, 930-941.
 김경호 (2009).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2), 135-168.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CQR).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김형지, 신정훈, 연구진, 김향숙 (2015).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4), 811-841.
 류승아 (2014).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43-60.
 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 참여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9(3), 367-383
 박수현 (2010).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의주 (2012).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

- 애협오와 심리적 안녕감 및 드러내기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호, Lawrence Gerstein, Deborah Miller (2014). 대학생 동성애 상담: 상담자 훈련을 위한 체계적 모델의 활용. *인간이해*, 35(1), 53-71.
-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25-842.
- 서영석, 이정림, 강제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 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9).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서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sogilaw.org/75>.
- 성정숙 (2010). 레즈비언 생애사 연구: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비판적 확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정숙, 이현주 (2010). 동성애자인권활동가의 청소년기 경험과 탄력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73-204.
- 손소연, 이지하 (2016).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 Giorgi 현상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2), 233-256.
- 송윤옥 (2006). 청소년 성적체성 발달과정: 사이버 동성애 상담사례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19-935.
- 여기동, 이미형 (2006).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 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5(3), 289-298.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윤성옥, 성승연 (2011).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17-1049.
- 윤수진 (2019). 성소수자(LGB)가 겪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희 (2010). 한국 사회 속 여성 동성애자들의 반동성애 폭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김소라 (2010). 사이버상담으로 호소된 남자 청소년의 동성애 관련 문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1), 93-112.
- 이승화 (2013). 여중생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자기수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성찰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장지윤 (2016).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윤, 안현의 (2018).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73-295.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정현영 (2018).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최은희, 윤혜미 (2011). 아동기 성폭력경험, 자아존중감, 성적체성노출 및 사회적 지지가 게이와 레즈비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4), 231-254.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s://chingusai.net/x/library/416855>
-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 (2007).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서울: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 <http://past.queerarchive.org/bbs/4709>
-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2016).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서울: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http://lgbtstudies.or.kr/>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 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 ALGBTIC LGBQQIA Competencies Taskforce: Harper, A., Finerty, P., Martinez, M., Brace, A., Crethar, H. C., Loos, B., Harper, B., Graham, S., Singh, A., Kocet, M., Travis, L., Travis, L., Lambert, S., Burnes, T., Dickey, L. M., & Hammer, T. (2013). 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competencies for counsel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queer, questioning, intersex, and ally individual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7(1), 2-4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73). Position statement on homosexuality and civil righ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therapy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American Psychologist*, 67, 10-42.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shmore, R. D., Deaux, K., & McLaughlin-Volpe, T. (2004). An organizing framework for collective identity: Articulation and significance of multidimensi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30(1), 80-114.
- Bachrach, K. M., & Zautra, A. J. (1985). Coping with a community stressor: The threat of a hazardous waste fac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127-141.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7(3), 461-483.
- Branscombe, N. R., & Ellemers, N. (1998). Coping with group-based discrimination: Individualistic versus group-level strategies. In J. K. Swim, & C. Stangor (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 (pp. 243-26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1999).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 Americans: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135-149.
- Brown, T. N., Sellers, S. L., Brown, K. T., & Jackson, J. S. (1999). Race, ethnicity, and culture in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In C. S. Aneshensel, & J. C. Phel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167-182). Dordrecht, NL: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ass, V. C. (1979).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4(3), 219-235.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4), 608-63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vidson, W. B., & Cotter, P. R.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 being: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3), 246-253.
- Deaux, K. (1993). Reconstructing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1), 4-12.
- Eliason, M. J. (1996). Identity formation for lesbian, bisexual, and gay persons: Beyond a "minoritizing" view. *Journal of Homosexuality*, 30(3), 31-58.
- Farrell, S. J., Aubry, T., & Coulombe, D. (2004). Neighborhoods and neighbors: Do they contribute to personal well-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 9-25.
- Fassinger, R. E., & Arseneau, J. R. (2007). "I'd rather get wet than be under that umbrella": Differentiating the experiences and identiti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K. J. Bieschke, R. M. Perez, & K. A. DeBord (Eds.),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lients* (2nd ed., pp. 19-4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Gonsiorek, J. C., & Rudolph, J. R. (1991). Homosexual identity: Coming out and other developmental events. In J. D. Weinrich (Ed.), *Homosexuality: Research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pp. 161-17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erek, G. M., & Garnets, L. D. (2007). Sexual orientation and mental health.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3, 353-37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 Journal*, 6(1), 1-55.
- International Psychology Network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Issues (2018). IPsyNet statement on LGBTIQ+ concerns. Washington, DC: Author. Retrieved from <http://www.apa.org/ipsynet/advocacy/policy/state-ment-commitment.aspx>.
- Kahn, M. J. (1991). Factors affecting the coming out process for lesbians. *Journal of Homosexuality*, 21(3), 47-70.
- Kertzner, R. M., Meyer, I. H., Frost, D. M., & Stirratt, M. J. (2009). Soci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The effects of race, gender, age, and sexual ident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4), 500-510.
- Keyes, C. L.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207-222.
- Keyes, C. L. (2005).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3), 539-548.
- Keyes, C. L. M., Wissing, M., Potgieter, J., Temane, M., Kruger, A., & van Rooy, S. (2008).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 in Swetsana-speaking South Africa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5(3), 181-192.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andis, R. S., Beal, D. J., & Tesluk, P. E. (2000). A comparison of approaches to forming composite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2), 186-20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The coping proces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formulations. In R. S. Lazarus, & S. Folkman (Ed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pp. 141-180).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n, Y. J., & Israel, T.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Sca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0(5), 573-587.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uhtanen, R. K. (2002). Identity, stigma management, and well-being: A comparison of lesbians/bisexual women and gay/bisexual men. *Journal of Lesbian Studies*, 7(1), 85-100.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Matsunaga, M. (2010). How to factor-analyze your data right: Do's, don'ts, and how-to'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3(1), 97-110.
- McCarn, S. R., & Fassinger, R. E. (1996). Revisioning sexual minority identity formation a new model of lesbian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3), 508-534.
- McDonald, R. P., & Ho, M. H. R. (2002). Principles and practice in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Psychological Methods*, 7(1),

- 64-82.
- McMillan, D. W. (1976). *Sense of community: An attempt at defi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Nashville, Tennessee, USA.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iller, C. T., & Major, B. (2000). Coping with stigma and prejudice. In T. F. Heatherton, R. E. Kleck, M. R. Hebl, & J. G. Hul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pp. 243-272).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iranda, J., & Storms, M. (1989). Psychological adjustment of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1), 41-45.
- Mohr, J. J., & Kendra, M. S. (2011). Revision and extens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minority identity: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34-245.
- Park, C. L., Folkman, S., & Bostrom, A. (2001). Appraisals of controllability and coping in caregivers and HIV+ men: Testing the goodness-of-fit hypothe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3), 481-488.
- Prezza, M., Amichi, M., Roberti, T., & Tedeschi, G. (2001).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29-52.
- Prezza, M., & Costantini, S. (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8*(3), 181-194.
- Proescholdbell, R. J., Roosa, M. W., & Nemeroff, C. J. (2006). Component measure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mong gay m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1), 9-24.
- Riggle, E. D., Mohr, J. J., Rostosky, S. S., Fingerhut, A. W., & Balsam, K. F. (2014). A multifactor 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LGB-PIM).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4), 398-411.
- Riggle, E. D., & Rostosky, S. S. (2011). *A positive view of LGBTQ: Embracing identity and cultivating well-be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Rosenberg, S., & Gara, M. A. (1985). The multiplicity of personal identity: Self, situations, and social behavior. In P. R. Shav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87-113).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Ryan, C., & Futterman, D. (1998). *Lesbian and gay youth: Care and counseling*.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nchez, B., Colon, Y., & Esparza, P. (2005). The role of sense of belonging and gender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19-628.

- Schmitt, J. P., & Kurdek, L. A. (1987). Personality correlates of positive identity and relationship involvement in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13(4), 101-109.
- Smart, L., & Wegner, D. M. (2000). The hidden costs of hidden stigma. In T. F. Heatherton, R. E. Kleck, M. R. Hebl, & J. G. Hul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pp. 220-242). New York, NY: Guilford Press.
- Stevens, J. P. (201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5th ed., p.346). New York, NY: Routledge.
- Suls, J., & Fletcher, B. (1985). The relative efficacy of avoidant and nonavoidant coping strategies: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4(3), 249-288.
- Taylor, S. E., & Stanton, A. L. (2007). Coping resources, coping processes, and mental health.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3, 377-401.
- Thoits, P. A. (1991). On merging identity theory and stress research.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2), 101-112.
- Thoits, P. A. (1999). Sociological approaches to mental illness. In T. L. Scheid & T. N. Brown (Eds.),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Social contexts, theories, and systems* (pp. 121-13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oiden, R. R. (1989). The formation of homosexual identities. *Journal of Homosexuality*, 17(1-2), 43-74.
-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2016). WPA Position Statement on Gender Identity and Same Sex Orientation, Attraction and Behaviours. Geneva, CH: Author. Retrieved from <http://www.wpanet.org/position-statements>.
- 원 고 접 수 일 : 2019. 09.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1. 07
계 재 결 정 일 : 2020. 03. 30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and Positive Identity on the Well-be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Korea: The Mediating Role of Minority Stress Coping Strategies

SungWon Yoon-Lee¹⁾

Kyu Jin Yon²⁾

¹⁾Master's Degree,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ns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PSOC-LGBT) and 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LGB-PIM) on the well-being (MHC-SF) of lesbian, gay, and bisexual (LGB) Korean adults through minority stress coping strategies (i.e.,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y [CSI-S], problem-solving coping strategy [CSI-P], avoidance coping strategy [CSI-A]). Participants were 937 respondents, 18 years and older, who self-identified as LGB.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7.0. PSOC-LGBT and LGB-PIM showed positive effects on CSI-S and CSI-P. Also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f PSOC-LGBT on the MHC-SF of Korean LGB adults. The MHC-SF was predicted by CSI-P positively, and by CSI-A negatively. Additionally, the bootstrapping method found that PSOC-LGBT and LGB-PIM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MHC-SF through CSI-P.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lesbian, gay, bisexual, sense of community, positive identity, minority stress coping